

원로배우 김지미, 미국서 85세 일기로 별세

1960년대 한국영화 르네상스 주역…출연작 700여편 달해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본명 김명자·사진)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10일 “김지미 배우가 한국시간 지난 7일 오전 4시 30분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평소 심장 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직접적 사인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미국 현지에 서 회장이 끝났으며 오는 12일 고인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것을 고려해 별도의 영화인장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고인은 덕성여고 재학 시절 미국 유학을 계획하던 중 우연히 김기영 감독에게 ‘길거리 캐스팅’ 되면서 17세에 배우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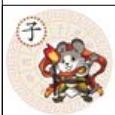
을 걱정 됐다. 데뷔하는 과정에서 염은 예언 ‘김지미’가 배우로서의 이름이 됐다. 성공적인 데뷔로 주목 받은 그는 이듬해 멜로 영화 ‘별아

내 가슴에’(1958·홍성기)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비 오는 날의 오후 3시’(1959·박종호), ‘장희빈’(1961·정창학) 등에 출연하며 1960년대까지 이어지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를 수놓았다.

실인 사건의 중심에 선 묘령의 여인을 연기한 ‘불나비’(1965·조해원)는 그의 ‘팜므파탈’ 매력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최인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10월 22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일에 대해 선택을 행한다면 이 속담을 염두에 두라. “승종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36년생 의견이 달라도 상대의 입장은 세워줘라. 자기주장을 화를 부른다. 48년생 평소의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호의를 거절하면 자신만 순해다. 60년생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 재고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길 바란다. 72년생 언제나 남에게 배울기를 잘 한 사람이라면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4년생 재회, 재결합 등 애정과 결혼운에서 다시 만남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96년생 이직이나 전직을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시기 좀 더 보내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수: 28 행운의 색: 검은색



소띠: 위험한 연애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37년생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님에 혼자서도 살아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49년생 아주 사소한 오해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쉽다. 61년생 세상은 꽉짜가 없다는 것만 명심하면 적절한 거래가 있을 것이다. 73년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랫사람들과 소리를 하며 보내는 것이 좋은 운이다. 85년생 모든 것을 갖추고 즐거운 인생만을 위한 결혼을 생각한다면 고생길이 될 수밖에 없다. 97년생 무슨 일이라도 소신껏 하라. 안되는 일이 있다면 9년생 마음을 열고 진술한 대화를 시도해보라.

행운의 수: 36 행운의 색: 파란색



호랑이띠: 포기할 건 감히 포기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38년생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0년생 매매는 성급하면 순례를 볼 수 있지만 차분히 추진하면 유리하겠다. 62년생 우연히 찾아와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귀인이고 친안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니 심신이 평온하다. 74년생 힘들었던 자녀가 있으면 일 이 해결되며 조금씩 나아질꺼라고 본다. 86년생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헛볕도 꾀면서 건강을 쟁여야겠다. 98년생 너무 생활에 베껴지다 보면 주진역에게 결정할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행운의 수: 19 행운의 색: 빨간색



토끼띠: 힘들다고 느낄 것이다. 어렵고 힘들지 않게 결과를 얻을 수 없다.

39년생 작은 일이라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잘 생각하라. 51년생 이제는 마지막으로 검토할 일만 남았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다. 63년생 소통을 자주해 상처받지 않고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어라. 75년생 심신안정이 필요하며 급한 번동 말고 내실에 충실히 하라. 87년생 더 이상 전진이 없는 현 상태만 유지한다 해도 아주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99년생 디자이너에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운동보다는 힘들어서 고민하는 운동이 더 좋을거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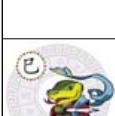
행운의 수: 57 행운의 색: 노란색



용띠: 낙심하지 말고 그릇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편안하면 성과 또한 좋을 것이다.

40년생 삶은 소리하고 새워봐야 감정만 상하고 들틀 것이 없다. 52년생 하는 일마다 고비가 생긴다. 오늘 하루는 조용히 지내며 좋겠지. 64년생 이해와 관용으로 덮어주는 것이 필요한 날이다. 76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 88년생 누군가가 길을 잘 닦아놓은 덕으로 수월하게 가게 된다. 00년생 성실한 자세로 살아갈 때다. 하늘은 스스로 드는 자를 돋는다. 12년생 자신이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실수가 없다.

행운의 수: 34 행운의 색: 자두색



뱀띠: 인맥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인맥의 도움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41년생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을 반드시 피해가야 한다. 53년생 인간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65년생 차근 차근 단계적으로 나가면 희망이 보인다. 77년생 피로가 쌓인다. 내버려 두디가는 만성화가 될 수 있다. 89년생 생기지도 않았던 일이 생기더라도 헌들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도록 하라. 91년생 아직도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으니 안심하지 마라.

행운의 수: 0.6 행운의 색: 흰색



말띠: 제3자인 도움을 받아라. 특히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다.

42년생 미칠 듯한 삶 속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흥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4년생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간다. 66년생 모든 것은 작은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78년생 신중하게 한번 더 확인하고 행동하라. 순조롭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잠시 쉬어가도록 하자. 90년생 이해와 관용으로 덮어주는 것이 필요한 날이다. 02년생 자신이 감정을 확실하게 전달하면 곧 결실을 맺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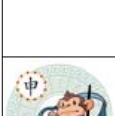
행운의 수: 3.6 행운의 색: 초록색



양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안행에 신경 쓰도록 하라.

43년생 좀 더 너그러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55년생 이제는 굳은 삶이 생길 때도 된 것 같은데 심정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67년생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믿음이 가니 차츰 마음의 문이 열린다. 79년생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듯이 먼저 상대에게 배우는 것이 좋다. 91년생 신진감을 가져라. 상승하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다. 03년생 한 번 옳다고 생각한 것은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바로 밀어붙여 실행으로 옮겨라.

행운의 수: 1.7 행운의 색: 보라색



원숭이띠: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44년생 외부로부터 오는 상황에 따라 일회일비하기 쉽다. 56년생 무슨 일이든 진작하면 이루어지 못한다. 68년생 이제야 막혔던 일이 뚫리다는 느낌이 든다. 80년생 마음이 금하지 않을 수 있다. 천천히 확인해야 한다. 92년생 모으기는 힘들어도 쓰는 건 한순간이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 04년생 활동성이 많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다.

행운의 수: 2.4 행운의 색: 흰색



닭띠: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지 마라.

45년생 앙이 한 자세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긴다. 꼼꼼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57년생 오늘 다 처리하지는 못한다. 여유를 가지고 해결해야 하겠다. 69년생 신 안목으로 좀 더 참고 기다려보라. 81년생 악수한 일은 꼭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맡겨진 일은 책임을 가지고 행하라. 93년생 스스로에게 상을 줄 때마다 갖고 싶었던 것을 사는 것도 좋고 휴식도 좋다. 05년생 기분 좋게 시작한 일들이 기분 좋게 마무리된다.

행운의 수: 0.9 행운의 색: 파란색



개띠: 배풀어라.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는 법이다.

46년생 상대를 이해한다면 상대도 나를 이해해줄 것이다. 너그러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58년생 서로의 믿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믿고 가기에는 펌퍽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70년생 쉴 때 쉴 줄 알아야 할 수 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라. 82년생 생각 없이 헛되이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며 펴질 수 있다. 94년생 그냥 넘어가야 할 일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에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06년생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

행운의 수: 1.3 행운의 색: 노란색



돼지띠: 먼저 연락하여 안부라도 전한다면 후에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35년생 참을 인기자를 기습해 사고하고 순기적인 감정을 짚어야 한다. 47년생 온몸에 전율이 오고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 59년생 시작이 좋은데 어찌 끝이 나쁠 수 있을까. 충분히 즐거워하고 여유를 만끽하라. 71년생 비밀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도 마음에 그늘이 된다. 83년생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난처한 부탁을 할 수 있으니 공과사를 구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라. 95년생 미움을 열어라. 진정한 대화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행운의 수: 1.5 행운의 색: 국방색

광주매일TV

광주매일신문 영상뉴스 제보·문의 062) 650-2010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립' 수료식 & 송년음악회
창조클립 15강 이병훈 前 국회의원 '한국 경제와 안보'
[파워인터뷰] 크리스마스 카터타 공연 주최한 그라시아스합창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

최인태의 사주칼럼

오복(五福)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오복(五福)은 단순히 복이 많다는 뜻이 아니다. 오복은 인간이 평생을 안정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다섯 가지 삶의 조건이다. 이는 운이 좋고 나쁨을 떠나, 음양오행의 균형 속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구조’에 가깝다.

고전에서 말하는 오복은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흐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이다.

첫째, 수(壽)는 오래 사는 것을 뜻하지만 단순한 장수가 아니다.

음양오행에서 수명은 수(水)와 토(土)의 균형에서 나온다. 수(水)는 생명의 근원이고, 토(土)는 그것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몸이 오래 버티는 사람은 태고난 체력보다 생활의 리듬과 절제가 조화를 이룬다. 강녕은 속도를 줄이고 균형을 회복할 때 찾아온다.

넷째, 유흐덕(攸好德)은 덕을 좋게 여겨지는 운이다.

둘째, 부(富)는 재물이다.

재물은 금(金)의 기운이지만, 흔히 없는 부는 오래가지 못하고, 덕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붕괴된다. 인간관계가 얕히고 깊어질수록 덕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는 ‘인복(人福)’의 핵심이다.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은 편안한 마무리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완성도다. 시작이 좋아도 끝이 흐트러지면 복이 아니다. 이는 토(土)의 완성 단계이자, 음양의 순환 이 자연스럽게 달하는 상태다.

이는 오행 전체의 균형을 의미한다. 한쪽 기운이 강하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탈이 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너진 복이 바로 강녕이다. 돈을 벌어도 별도로 성공해도 불안하다. 이는 음양의 과속 때문이다. 강녕은 속도를 줄이고 균형을 회복할 때 찾아온다.

넷째, 유흐덕(攸好德)은 덕을 좋게 여겨지는 운이다.

다섯째, 유흐덕(攸好德)은 덕을 좋은 운이다. 덕은 목(木)의 기운이다. 목은 성장과 연결, 관계를 의미한다. 덕이 없는 부는 오래가지 못하고, 덕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붕괴된다. 인간관계가 얕히고 깊어질수록 덕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는 ‘인복(人福)’의 핵심이다.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은 편안한 마무리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완성도다. 시작이 좋아도 끝이 흐트러지면 복이 아니다. 이는 토(土)의 완성 단계이자, 음양의 순환 이 자연스럽게 달하는 상태다. 양지로 끝난 고종명에 이르지 못한다.

오복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부족하면 다른 복도 흔들린다. 이것이 바로 상생과 상극의 원리다. 진짜 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있다.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오복은 곧 ‘후덕자복(厚德者福)’이며,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균형의 철학이다.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2)610-7100 MBC (062)360-2000 KBC (062)650-3114 EBS 1588-1580	
--	--